

미러 외교회담 취소...“우크라 침공 확대시 제재 확대”

미 “러 침공으로 현재로선 회담 무의미...2차대전 이래 유럽안보 최대위협”
“러가 긴장완화 조치시 외교 전념” 여지 남겨...“가식적 외교 용납 못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하고 병력 투입 명령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든 판단에 따라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병력 투입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드미트로 콜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24일 만나 유럽 안보에 대한 각 측의 우려를 논의하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였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러시아는 외교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분명히 했다”며 “현시점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했고, 이 역시 ‘러시아의 침공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사전에 달았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상 회담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현시점에서는”이라는 표현을 달아 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데 진지하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국제사회에 주기 위해 입증 가능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외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현장에서의 러시아 행동과 사

실에 근거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갈등과 전쟁의 길로 나아가는 속도를 높이면서도 가식적인 외교를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병력 투입을 명령했다.

미국은 전날 푸틴 대통령의 ‘침공’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제재에 이어 이날 러시아 최대 국제은행 등 은행 2곳과 자회사 42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확대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역시 제재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의 전날 연설을 거론하며 “그(푸틴)는 이 충격적인 연설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영토 보전과 독립의 권리를 가진 주권국이 아니라, 러시아가 만들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속국으로 보는 시각을 전 세계에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와 국제법, 자유롭고 독립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수천 만의 우크라이나인을 무시하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푸틴의 발언은 “그의 계획이 줄곧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결집시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을 내세운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또 현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군 병력과 장비들이 새로 배치된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하기로 한 러시아가 접경지역에서 병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벨라루스 등 접경지에 러시아 병력 증강 정황” 로이터통신 위성사진 공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하기로 한 러시아가 접경지역에서 병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위성업체 맥사(Maxar)는 전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우크라이나 북쪽 접경지인 벨라루

스 남부 지역에 군용차량 100여대와 막사 수십개가 새로 배치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의 군사기지에서는 새 야전병원이 추가로 건설된 모습도 관찰됐다. 또 우크라 국경 인근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일부 병력이 새로 배치됐고, 대포 등 중장비와

전차 등을 이동시킬 중장비 수송차량이 목격됐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곳에 병력 투입을 명령했다. 미국은 이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U·영국 일제히 러시아 제재...독일, 가스관 사업 중단

러 은행·재벌, 금융·무역 등 겨냥
돈바스 독립 승인 관여자도 포함

유럽연합(EU)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재를 일제히 발표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U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이를 국제법과 국제적 합의의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서방의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로 꼽히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

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764마일(약 1230km)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를 불허하는 것은 대러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이 사업을 개시했다.

영국도 러시아 은행 5곳과 재벌 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국 내 자산동결, 영국 개인·기업과 거래 금지,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인 겐나디 팀첸코와 보리스 로텐베르그, 그의 조카인 이고르 로텐베르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영국은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런던 금융시장에서 국제발행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EU는 또한 DPR, LPR 지역과 EU간 무역을 금지할 것이고 EU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EU와 영국이 결정한 제재에 대해 기존 조치에서 특별히 더 나아가는 것이 없으며 강도 또한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수당 소속으로 하원 외교위원장인 토티젠다트 의원은 “미국의 제재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효과를 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더 타임스는 영국 제재가 유럽연합(EU) 계획이나 미국이 이미 한 것보다 약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한국인 71%,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미 싱크탱크 여론조사

“10년 후 최대위협은 중국”

한국인 열 명 중에 일곱 명꼴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사카고국제문제연구소(CCGA)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26%는 반대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56%가 지지했지만 40%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자체 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느 것을 선호

하느냐는 물음에는 ‘자체 개발’이 67%로 ‘미국 핵 배치’(9%)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24%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문항에 61%는 긍정적 태도를 취했지만 36%는 부정적 응답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고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문항에선 북한(46%), 중국(33%), 일본(10%), 미국(9%) 순이었다.

10년 후를 가장할 때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중국이 56%로, 두 번째인 북한(22%)을 크게 앞질렀다. /연합뉴스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중급반</p>
<p>1 200평 (27) 2 300평 (40.8) 3 160평 (21.76) 4 161평 (21.5) 5 280평 (37.4) 6 150평 (20) 7 158평 (21.2) 8 150평 (20) 9 110m (208평) 6m 도로</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거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p> <p>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p> <p>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h2>010-6670-9800</h2>	